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관련요인

이미련*, 남문희**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대동대학교 간호학과**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Mi-Ryon Lee*, Mun-Hee Na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및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설계는 서술적 상관관계연구로, 연구기간은 201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 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G시에 소재하는 K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306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유형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는 가족기능, 자아분화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자아분화, 가족기능이었다. 결론적으로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가족기능, 대인관계, 간호학생, 자아분화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conducted visit-surveys with organized questionnaires and sampled 306 nursing students. Data was analyzed by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14.0. Findings revealed that; 1) the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ge and grade; 2) Pearson's correlation revealed a significant association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mily function and self-differentiation;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nursing professionals should provide proper program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ed to self-differentiation and family function.

Key Words : Family fun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ing student, Self-differentiation

Received 7 April 2014, Revised 15 May 2014
Accepted 20 June 2014
Corresponding Author: Mun-Hee Nam(Department of Nursing, Daedong University)
Email: ny386@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새로운 대학환경에 접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대인관계의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로서 중요한 타인들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숙련된 간호기술 뿐만 아니라 임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기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졸업이전 간호실습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게 됨으로 재학시 대인관계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대인관계는 졸업후 임상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은 학부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2].

그동안 간호교육에 있어서 간호학생들에게 대인관계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치료적 의사소통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 개인의 대인관계에 실제적인 긍정적인 변화는 적으며 대인관계 기술을 단시간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간호대학생에 있어서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함을 인식은 하고 있으나, 대인관계를 개인의 성향의 하나로 보고 대인관계 증진이나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어, 우선 대인관계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인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체계[3], 부모양육태도[4], 부모애착[5], 자아분화[6,7], 의사소통[8]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Kim[3]은 대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9]은 부모양육태도와 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Nam[10]은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는 적다고 하였으며 자아분화가 후기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Kang[11]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사교-우호적 대인관계 성향에 유의한 호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것과 같이, 1980년대 이후 대학생들에 대한 대인관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와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성 연구나 대인관계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대부분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관련요인을 알아 본 연구는 몇 편[8,12]에 불과하다. Kim[13]은 간호대학생에서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연구나 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하였고, 최근 연구는 부족하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관련요인으로서, 가족체계를 조사한 연구[3]는 있으나 가족기능을 조사한 연구는 없으며 의사소통을 살펴본 연구[14]는 있으나 의사결정유형을 조사한 연구는 Kim[15]의 연구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인관계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긴장, 불안 등 부정적 정서와 부적응적인 행동이 유발되는 등 인간의 적응적 삶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3].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대인관계를 잘 맺고, 더 나아가 장차 간호대상자와 바람직한 조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관련 요인으로서 가족기능, 자아분화, 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관련요인을 밝히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유형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유형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G시에 소재하는 K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으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에 서면 동의한 306명이었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t-test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는 102명이었고 ANOVA에 필요한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는 140명이었다. 그리고 상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통계검정력 .80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는 82명,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통계검정력 .80을 투입하여 산출한 결과는 68명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3 연구도구

2.3.1 대인관계

Guernsey[16]의 대인관계 변화도구(Relationship Change Scale)를 Moon[17]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및 이해성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Guernsey[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9$ 로 나타났다.

2.3.2 가족기능

Noller, Seth-Smith, Bouma와 Schweutzer[18]의 ICPS 가족기능척도(ICPS Family Functioning Scales)를 Kim, Jeon과 Kim[19]이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ICPS 가족기능척도는 친밀감 영역 12문항, 갈등 영역 10문항, 양육방식 영역 8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Yang[20]의 논문에서처럼 신뢰계수가 낮은 2문

항을 제외한 총 2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친밀감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 정도가 높고 갈등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간에 갈등이 높으며, 양육방식 영역은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점수가 낮을수록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6$ 으로 나타났다.

2.3.3 자아분화

Bowen[21]의 가족체계이론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한 Je[22]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과 가족퇴행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기능 대 정서적 기능은 자아분화가 낮을수록 정서적 기능이 크게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통합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자기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투사과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투사가 적게 이루어짐을 말하며 정서적 단절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적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퇴행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퇴행정도가 낮은 가정에서 양육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2.3.4 의사결정유형

Harren[23]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형검사를 Go[24]가 우리 문화에 맞게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자신이 진다. 직관적 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미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정보탐색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상상과 정서적 자각을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의존적 유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며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부정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74$ 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간호대학생을 직접 만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익명 및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참여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배부된 총 설문지는 330부였으나 316부가 회수되어 95.8%의 회수율을 보였고, 이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306부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대인관계,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유형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검정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대인관계,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여자가 264명, 남자가 42명이었고, 나이는 19세 이하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세에서 21세가 125명, 22세 이상이 53명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96명, 2학년이 83명, 3학년이 58명, 4학년이 69명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동이 9명으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무교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82명, 불교 59명, 가톨릭 22명 순이었으며, 주관적인 가정생활수준은 중정도가 2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86명, 하숙이나 자취하는 경우가 39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은 각각 고졸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는 경우가 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험이 없는 경우가 42명, 많은 경우가 27명이었다 <Table 1>.

3.2 대상자의 대인관계,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유형 정도

대상자의 대인관계 정도는 최저 57점, 최고 125점 중 평균 92.10±12.98이며, 가족기능 정도는 최저 47점, 최고 118점 중 평균 76.2±7.27점이었다. 자아분화 정도는 최저 68점, 최고 134점 중 평균 104.8±11.96, 의사결정유형 정도는 최저 66점, 최고 123점 중 평균 95.5±9.11점으로 나타났다 < Table 2>.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정도의 차이 검정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정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대인관계는 10개 변수 중 나이(F=3.09, P=.047), 학년(F=6.4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을 위하여 Scheffe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나이에 있어서는 20세에서 21세와 22세 이상이 19세 이하에 비하여 대인관계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학년에서는 3, 4학년이 1, 2학년에 비하여 대인관계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상자의 대인관계 정도는 성별, 출생순위, 종교, 주관적인 가정생활수준, 거주형태, 부 학력, 모 학력, 아르바이트 경험 등의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3.4 대상자의 대인관계,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유형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유형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는 가족기능($r=.29$, $P<.001$), 자아분화($r=.34$,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가족기능 정도와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기능은 자아분화($r=.38$, $P<.001$), 의사결정유형($r=.18$, $P=.002$)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분화는 의사결정유형

($r=.21,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Table 1>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6)

Characteristics	n(%)	M±SDt or F		p
Gender				
Male	42(13.7)	93.0±14.47	0.50	.621
Female	264(86.3)	92.0±12.75		
Age(year)†				
≤19 ^a	128(41.8)	89.9±12.47	3.09	.047
20~21 ^b	125(40.8)	93.6±13.42		
≥22 ^c	53(17.3)	93.8±12.63		a<b,c
Grade†				
1 ^a	96(31.4)	89.9±11.69	6.43	<.001
2 ^b	83(27.1)	88.9±14.26		
3 ^c	58(19.0)	95.2±12.33		a,b<c,d
4 ^d	69(22.5)	96.3±12.11		
Sibling's order				
First	150(49)	92.0±12.61	0.34	.798
Middle	40(13.1)	91.6±13.00		
Last	107(35.0)	92.7±13.67		
Only one	9(2.9)	88.4±11.84		
Religion				
Protestant	82(26.8)	93.3±14.94	0.79	.501
Catholic	22(7.2)	94.5±11.82		
Buddhism	59(19.3)	90.6±10.93		
None	143(46.7)	91.7±12.74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5(1.6)	102.8±12.15	1.22	.301
Middle-high	39(12.7)	92.6±15.50		
Middle	200(65.4)	91.8±11.57		
Middle-low	50(16.3)	91.1±15.50		
Low	12(3.9)	95.8±14.86		
Living situations				
Parent Boarding	176(57.5)	91.3±12.64	0.80	.493
house	39(12.7)	94.6±14.14		
Dormitory	86(28.1)	92.3±12.85		
Others	5(1.6)	95.6±18.50		
Father's education				
Elementary	5(1.6)	89.4±13.13	0.15	.961
school				
Middle school	11(3.6)	91.4±13.03		
High school	162(52.9)	92.0±12.45		
College	111(36.3)	92.6±13.80		
Graduate	17(5.6)	90.8±13.75		
school				
Mother's education				
Elementary	6(2.0)	93.0±9.14	0.72	.580
school				
Middle school	17(5.6)	93.2±12.67		
High school	197(64.4)	91.7±13.14		
College	78(25.5)	92.2±13.40		
Graduate	8(2.6)	99.4±5.97		
school				
Experience of part-time job				
No	42(13.7)	90.0±13.22	2.02	.135
Yes	237(77.5)	92.0±12.61		
many	27(8.8)	96.3±15.18		

† scheffe's test, p<0.05

< Table 2 > Degre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mily Function, Self-differentiation and Decision Making Style (N=306)

Variables	Range	Min	Max	M±SD
Interpersonal relationship	25~125	57	125	92.10±12.98
Family function	28~112	47	118	76.2±7.27
Self-differentiation	36~144	68	134	104.8±11.96
Decision making style	30~150	66	123	95.5±9.11

<Table 3> Correlations amo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Family Function, Self-differentiation and Decision Making Style (N=306)

Variables	IR	FF	SD
	r(P)	r(P)	r(P)
FF	.29(<.001)**		
SD	.34(<.001)**	.38(<.001)**	
DM	.07(.211)	.18(.002)*	.21(<.001)**

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FF: Family function
SD: Self-differentiation, DM: Decision making style

3.5 대상자의 대인관계 관련 변인

대상자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에는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인, 가족기능, 자아분화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자아분화($\beta=.27, t=4.74, P<.001$), 가족기능($\beta=.18, t=3.22,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대인관계에 대해 14.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306)

Variables	β	t	P
Self-differentiation	.27	4.74	<.001**
Family function	.18	3.22	<.001**
Adjust	$R^2=.140, F=25.92, P<.001$		

4. 논의

간호대학생에게 대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증재가 부족한 상황이다[13]. 그리하

여 본 연구는 중재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정도도 나이,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에 있어서, 20세에서 21세와 22세 이상이 19세 이하에 비하여 대인관계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있어서 3, 4학년이 1, 2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대인관계를 보였다. 이는 고등학교 시기까지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학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인관계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Song과 Jang[25]은 대학생활시기에 성취해야 하는 주된 발달상의 과제는 부모와의 관계,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입학 후 초기에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학과 행사는 물론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겠다.

가족기능, 자아분화, 의사결정유형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자아분화로 나타났다. Bowen[21]은 자아분화수준이 높으면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타인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자아분화수준이 낮을수록 타인에게 심한 정서적 애착을 보이고, 그러한 관계가 깨질 때 불안해 한다고 하였다. 자아분화수준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같은 내적 영역은 물론 대인관계 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적응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26].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26,6,7]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Lee[26]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정도가 자아분화 수준에 의해 22.1% 설명된다고 보고하였으며, Yoon[7]은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적으며 자기감정을 잘 통제한다고 하였으며 자아분화수준이 대인관계에 대해 15.5%의 설명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Lee[6]의 연구에서는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단절을 제외한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11.6%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분화는 가족관계 내에서 뿐

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맺는 대인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간호대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자아분화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중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가족기능으로 확인되었다. Lee[27]는 가족이 잘 기능할수록 그 가정의 자녀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책임감 있고 수용적이고 사교적이며 원만한 대인관계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Shin[28]도 가족기능이 원활할수록 대인관계성향에서 긍정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한다고 보고 하였다. 가족은 개인의 성격형성에 기초가 되는 환경을 제공하며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양식은 가족 간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대인관계의 연장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족구성원들 간의 친밀감과 갈등은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족기능 정도는 대인관계에 큰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의 가족구성원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력이 14.0%로 나타나 추후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29,30,4]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 개 대학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간호대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향후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를 펼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관련요인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나이와 학년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높은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아분화를 높이며 가족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 유형변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높은 자아분화와 가족기능은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분화도와 가족기능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중재를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기능, 자아분화 및 의사결정유형을 선정하여 알아보았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변인이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는 후속연구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분화 향상에 중점을 둔 대인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REFERENCES

[1] Noller, P., Callan, V. J.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nature of their communication with paren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Vol. 19, No. 4, pp. 349-362, 1990.

[2] Thomas, R. Health communication. New York: Springer, 2006.

[3] M. H. Kim, A study on family system,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2004.

[4] H. Y. Yoon, The impa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ha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2013.

[5] S. M. Hwang, H. J. Bang, J. E. Shin, The relations among male college students attachment, parent's attachment and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5, No. 1, pp. 67-86, 2010.

- [6] S. J. Lee, The relationship of self-differenti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2.
- [7] S. M. Yoon, A study on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0.
- [8] J. W. Park, M. S. Choi,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 2009.
- [9] I. S. Kim, Effects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ttachm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0.
- [10] S. C. Nam,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and self differentiation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2004.
- [11] Y. K. Kang,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with patents on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2.
- [12] S. H. Sok, D. S. Shin, K. B. Kim, Original articles: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 4, pp. 475-481, 2006.
- [13] M. H. Kim, The effects of MBTI based self growth program on ego identity,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5.
- [14] M. A. Kang,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interpersonal relations tend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2012.
- [15] H. S. Kim, The effects of the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R.E.B.T on the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career attitude maturity scale and decision making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unkuk University. 2001.
- [16] Guerney, B. G. Relationship enhancement : Skill-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and enrich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Vol. 39, No. 9, pp. 84-85, 1977.
- [17] S. M. Moon, A study on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Vol. 19, pp. 195-204, 1980.
- [18] Noller, P., Seth-Smith, M., Bouma, R. & Schweutzer, R. "Parent and adolescent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 clinic and non-clinic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5(1), 101-114, 1992.
- [19] Y. S. Kim, Y. J. Jeon, S. Y. Kim, Family assessment Handbook. Seoul: Hakjisa, 2003.
- [20] S. J. Ya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family function and self-differentiation of college students on the consciousness of cohabitation before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2012.
- [21] Bowen, M.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1982.
- [22] S. B. J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dysfunction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9.
- [23] 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4, No. 2, pp. 119-133, 1979.
- [24] H. J. Go,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2.
- [25] J. A. Song, J. S. Jang,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1, pp. 119-144, 2010.
- [26] E. H. Lee, The relationships of self-differentiation with personal relations and behavior problems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08.
- [27] M. H. Lee, Effect of family functioning of children'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4.
- [28] G. S. Shin,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and the tendency of interpersonal relations in the children by family cohesion &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1.
- [29] H. S. Kim,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ego-resili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abil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3.
- [30] J. Su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Mediated by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3.

이 미 련(Lee, Mi Ryon)



- 2009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4년 2월 : 가야대학교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에니어그램
- E-Mail : mrlee1365@naver.com

남 문 희(Nam, Mun Hee)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학 박사
- 2010년 9월 ~ 2014년 2월 : 가야대학교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대동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행복지수, 환자안전, 의료의 질

· E-Mail : ny386@hanmail.net